

『법화험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에 대한 고찰(1)

-『일본왕생극락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金敬姬*

目次

1. 서론
2. 『극락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
3. 『법화험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
 - 3.1. 『법화험기』에 나타난 아미타정토신앙
 - 3.2. 보현보살의 내영(來迎)
 - 3.3. 『법화험기』에 나타난 왕생 수행
4. 결론

1. 서론

일본의 『법화험기』(원제목은 『大日本國法華經驗記』, 이하 『법화험기』로 함)¹⁾는 1040- 1044년(長久年間) 히에잔 요카와 슈료공인(比叡山横川首楞嚴院)에 거주하는 승려 진겐(鎮源)이 편찬한 법화경 영험담(法華經靈驗譚)이다. 그 내용 중에는 현세이익에 관한 영험과 내세이익에 관한 영험설화가 서술되어 있다. 이 『법화험기』설화 중의 절반 정도(총계129화중에서 64화)가 왕생설화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법화험기』가 왕생전인가 아닌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어 왔다.

이하, 『법화험기』에 나타난 왕생전 논쟁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게마쓰(重松明久)는 『법화험기』를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7개 왕생전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 설화집에 기술되어 있는 법화경신앙에 의한 왕생담과 비교해 보면 현보담(現報譚)은 수적으로 매우 적으므로 『법화험기』는 역시 왕생전의 범주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²⁾」라고 논했다. 시게마쓰(重松)의 발언을 계기로, 그 후 이점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시게마쓰(重松)의 논을 이어, 이시다(石田瑞鷹)는 『법화험기』를 또 다른 형태의 「왕생전」으로 간주하고³⁾, 고토(後藤祥子)도 어디까지나 『법화험기』를 왕생전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⁴⁾.

이것에 대해 니시구치(西口順子)는 「법화험기는 왕생전의 소재이기는 하나 왕생전 그 자체로 생

* 대덕대학 조교수 일본학

- 1) 『法華驗記』(井上光貞・大曾根章介『往生伝・法華驗記』日本思想大系, 岩波書店, 1974년에 수록). 이하, 모든 『法華驗記』내용에 대한 인용은 이것에 의한다.
- 2) 重松明久「往生伝の研究—平安時代の七往生伝につい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23, 1960년3월).
- 3) 石田瑞鷹『往生の思想』(平樂寺書店, 1968년)121쪽.
- 4) 後藤祥子「法華經驗記成る」『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第42卷10号, (學灯社, 1997년8월10日)61上.

각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론했다⁵⁾. 니시구치(西口)에 이어 『법화합기』를 왕생전이 아닌 왕생전의 성격을 지닌 법화경영험담으로 간주한 연구에는 하라다(原田行造)⁶⁾와 시무라(志村有弘)를 들 수 있다. 특히 시무라(志村)는 『왕생전연구서설』(『往生伝研究序説』)에서 『법화합기』는 왕생전이라기보다 이 작품의 제목대로 법화경의 영험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법화합기』 속의 왕생담의 의의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시무라(志村)는 본 설화집에 많이 서술되어 있는 왕생설화는 「법화경의 현세와 내세의 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

물론, 일본 최초의 왕생전인 『일본왕생극락기』(『日本往生極樂記』 이하, 『극락기』로 함)를 전거로 삼아 편찬된 『법화합기』는, 그 이후에 편찬된 많은 왕생전의 전거가 되었고, 또 많은 왕생설화가 『법화합기』속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왕생전적인 면이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왕생의 양상이 『법화합기』외의 다른 법화경영험설화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법화합기』에 나타난 왕생전적인 특징의 하나를 알 수 있다.

진겐이 『법화합기』를 편찬할 때 규범으로 삼았다고 하는 한국의 『법화경집험기』(『法華經集驗記』)와 진겐이 『법화합기』를 편찬할 당시에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던 당나라 혜상(惠詳)의 『홍찬법화전』(『弘贊法華伝』)·승상(僧詳)의 『법화전기』(『法華伝記』)를 살펴보면, 이들도 같은 법화경 영험전이면서 정토왕생에 관한 기술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화경 영험전에 있어서 왕생전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법화합기』에 있어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사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화합기』의 왕생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법화합기』가 왕생전이나 아니냐의 여부에 대한 것과 『극락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극락기』는 『법화합기』의 중요한 전거이고, 양자 모두 천태종에 공통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법화경 사상을 표방하는 『법화합기』는 정토사상=왕생사상을 나타내는 『극락기』와는 각각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화합기』가 『극락기』에서와 같은 왕생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법화합기』의 왕생의 양상이 『극락기』에 나타난 그것과의 차이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차이점이야말로, 『법화합기』가 표명하고자 하는 편찬의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법화합기』의 왕생전적인 측면의 의의에 주목하여 『법화합기』와 왕생전인 『극락기』에 나타난 왕생사상의 특징을 비교·고찰함으로써 『법화합기』에 나타난 법화경신앙의 특징과 편찬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극락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

『극락기』⁸⁾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문인귀족 요시시게 야스타네(慶滋保胤)가 간나 연간(寬和

5) 西口順子書評「重松明久『往生伝の研究』——平安時代の七往生伝について——」(『仏教史學』9~1、1960年11月)53下.

6) 原田行造「『本朝法華驗記』所收説話の諸特徴」(上)『金澤大學教育學部紀要』22号、1973年12.

7) 志村有弘『往生伝研究序説』(東京、櫻楓社、1976年)、356~357쪽.

8) 『日本往生極樂記』(井上光貞·大曾根章介『往生伝·法華驗記』日本思想大系、岩波書店、1974년에 수록).

年間, 985~986)에 편찬한 것이다. 『극락기』는 요시시게 야스타네와 당시의 일본사회의 신앙양상을 알기 위한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극락기』를 살펴보면 일본 천태종의 엔닌(円仁)에 의해 전파된 오대산 염불(五台山念佛)이 일본사회에 퍼져 천태종의 기본경전인 『법화경』⁹⁾을 뛰어넘어 정토교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는 정토사상의 발달과 함께 이 『극락기』를 기점으로 해서 연이어 왕생전이 편찬되었다. 이들 왕생전은 대부분 정토왕생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크게 서방정토왕생과 도솔천왕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극락기』에는 전부 42화의 왕생설화가 기재되어 있다. 『극락기』의 저자 요시시게 야스타네는 자신에 관해서 그 서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아미타염불을 하고... 바라옵기는 나는 일체중생과 함께 안락국(安樂國)¹⁰⁾에 왕생하리」(「豫少き日より弥陀仏を念じ...願はくは、我一切衆生とともに、安樂國に往生せむ」)라고 했다. 또 「행년 40 이후,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입에 명호를 외고, 마음에 상호(相好)를 본다 ... 그 당사탑묘(堂舎塔廟)에 미타상(弥陀像)이 있고, 정토를 그린 그림이 있으니,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行年四十より以降、その志いよいよ劇し。口に名号を唱へ、心に相好を觀ぜり...それ堂舎塔廟に、弥陀の像あり、淨土の図あるをば、敬礼せざることなし」)¹¹⁾라고 기록할 정도로 열렬한 아미타신앙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락기』의 왕생자는, 편자의 그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거의 대부분이 서방아미타 정토에 왕생했고, 미륵정토와의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다¹²⁾.

『극락기』는 대부분 그 인물의 출생·행업·임종·상서로운 징조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임종에 역점을 두고 임종정념(臨終正念)·임종염불(臨終念佛)에 의해 왕생한 인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그 인물이 왕생했다는 증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임종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라든가, 왕생자가 타인의 꿈에 자신이 왕생한 곳을 알려 주는 것 등이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락기』의 특징을 전제로, 본 절에서는 서방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왕생자의 임종의식(臨終行儀)과 그가 생전에 어떤 행업을 행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극락기』를 비롯한 왕생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왕생을 위해 어떤 행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왕생의 가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¹³⁾.

먼저, 『극락기』의 왕생설화에 보이는 임종의식(臨終行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왕생전의 내용 중에서 임종에 대한 부분은 각 작품마다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편자는 왕생자의 임종 그 자체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종에 주목하면 『극락기』의 왕생전의 성격을 더욱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모든 『극락기』 내용에 대한 인용은 이것에 의한다.

- 9) 본고에서 인용하는 『法華經』 내용은 일본어판 岩波書店, 岩波文庫本の 『法華經』上(1996年)·『法華經』中(1996年)·『法華經』下(1992年)를 토대로,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 10) 安樂國은, 『藥王菩薩本事品第二十三』의 예에서 살펴보면, 「만일 여인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목숨이 다한 후에 安樂世界の 아미타불과 대보살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 속의 보좌 위에 태어난다」(『藥王菩薩本事品第二十三』, 『法華經』下, 204쪽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함)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極樂記』11쪽.
- 12) 단지, 제18화에 「미륵하생의 때를 기한다」(「弥勒下生の暁を期せむといへり」)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미륵하생신앙과의 관련은 보이지만 왕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13) 佐藤弘夫 『神・仏・王權の中世』(東京、吉川弘文館、1992年), 390쪽 참조.

『극락기』에는 꿈에 왕생을 알린다는 사례가 12개 정도이고, 임종 시에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엔라쿠지(延曆寺)의 주지승정(座主僧正)인 조묘(增命)는 그의 임종 시에 아미타불이 그를 인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자 그날 밤 금색 빛과 보라색 구름이 길게 뻗치고, 음악이 허공에 울리고, 향기가 실내에 가득 찼으며, 그는 서쪽을 향해 아미타염불을 하면서 잠자는 것 같이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第6話). 또 승도(僧都) 사이젠(濟源)의 경우도 승방에 향기가 있고 하늘에서 음악이 흘렀다(第9話). 또, 구야(空也)가 입적할 때, 음악이 들리고 승방에 향기가 가득 찼으며 많은 부처·보살들이 그를 마중하러 왔다(第17話). 이 외에도 『극락기』에 묘사된 임종의 상서로운 징조로 「향기가 가득하다」(7例), 「절묘한 음악이 들린다」(17例), 「성스러운 보살대중들의 내영(聖衆來迎)이 있다」(5例) 「자주색 구름이 길게 뻗친다」(1例), 「큰 광명이 있다」(1例)라는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사례는 임종 때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극락기』의 대부분 설화에서 전형적·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상서로운 징조를 목전에서 보고 그 사람의 왕생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임종 때에 나타나는 이 상서로운 징조들은, 「내영(來迎)」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미타여래가 관음보살·세지보살과 그 외의 많은 성스러운 무리와 보살대중들을 거느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마중하러 온다는 아미타불의 내영(來迎)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제17화의 구야(空也)의 임종 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이 들리고, 향기와 자주색 구름이 뻗친다는 등의 징조는 아미타불의 「내영(來迎)」을 암시하는 중요한 현상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광경은 서방원왕생자(西方願往生者)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중대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상기의 광경의 직접 혹은 암시적인 묘사는 모든 왕생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극락기』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임종의 양상을 바탕으로 『극락기』에 기재되어 있는 왕생자에 대해 아미타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평소의 행업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을 분류해 보면, (1)극락 왕생만을 바라고 아미타염불만 전수(專修-하나의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하는 경우, (2)불교수행으로써, 『법화경』만을 전수(專修)하는 경우, (3)아미타신앙과 다른 수행을 겸수(兼修-한 가지 수행이 아니라 다른 수행도 겸하는 것)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이하, 전수·겸수로 칭함).

이하, 『극락기』에 나타난 아미타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업에 대해 서술해 보기로 한다.

| 전수(專修) | | 아미타신앙과의 겸수(兼修) | | | |
|--|------|------------------------------------|--|------------------------|--------------|
| 아미타신앙 | 법화경 | 법화경 | 밀교 | 법화경·밀교 | 기타 |
| 第5話、第8話、第9話、 第11話、第17話、第22 話、第24話、第25話、 第28話、第29話、第30 話、第31話、第32話、 第35話、第39話、第40 話、第41話、第42話 | 第34話 | 第7話、第 15話、第21 話、第33、 第36話 | 第6話、第12 話、第13話、 第14話、第19 話、第20話、 第27話、第37 話 | 第4話、第16話、 第18話、第26話 | 第3話、 第38話 |

『극락기』에 나타난 행업은 아미타신앙¹⁴⁾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아미타신앙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미타염불을 하고, 그 명호를 외우는 것은 서방극락왕생자에게는 중요한 행업이다. 『극락기』의 내용에서 아미타 전수신앙을 강하게 읽을 수 있는 예로서, 제5화의 「매일 목욕하고 염불한다. 겸해서 무량수경의 중요한 문구 및...미타찬(弥陀讚)을 외우고」(「毎日に沐浴して念仏す。兼ては無量壽經の要文および…弥陀讚を誦」)¹⁵⁾,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의 인(印)을 만들고 왕성한 율사 류카이(律師隆海)를 비롯하여, 제11화의 여러 가지 수행 중에서 「오직 미타의 상호(相好), 정토의 장엄함을 보았다」(「ただ弥陀の相好、淨土の莊嚴を觀じけり」)¹⁶⁾라는 간코지(元興寺) 승려 라이코(賴光)의 왕생, 또 제17화의 「입에 항상 미타불을 외운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를 아미타 수행자」(「口に常に弥陀仏を唱ふ。故に世に阿弥陀聖と号づく」)¹⁷⁾라고 불렸던 고행승 구야(空也)가 있다. 또, 제22화의 「아미타수행자」(「阿弥陀丸」)¹⁸⁾라고 불렸던 사미 교신(教信)등의 왕생도, 이미 그 명칭에서 아미타신앙만으로 왕생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법화경신앙¹⁹⁾을 수행한 경우는, 제34화뿐이고, 거기에는 우콘에소쇼(右近衛少將) 후지와라 요시타카(藤原義孝)가 「깊이 불법에 귀의하여...법화경을 외웠다...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방편품(方便品)을 외워」(「深く仏法に歸して…法華經を誦す…命終の間、方便品を誦す」)²⁰⁾왕생했고, 친구인 후지와라 타카토(藤原高遠)의 꿈에 시구를 지어 극락왕생을 알렸다는 예가 그것이다.

그 외에, 아미타신앙과 겹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행업을 겸수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먼저, 법화경신앙을 겸수하고 있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36화의 오치마사미(越智益躬)는, 「아침에는 법화경을 읽고...밤에는 미타를 염불하고, 그것을 일상의 일로 삼았다」(「朝は法花を讀み…夜は弥陀を念じて、もて恒のこととなせり」)²¹⁾라는 행업에 의해 극락왕생을 이루었다. 나아가 제7화의 율사 무쿠(律師無空)는 생전에는 스스로 염불하고 사후에는 좌의정 후지와라 나카히라(左大臣藤原仲平)에 의한 『법화경』서사의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변형된 형태이지만 결과적으로 염불과 『법화경』이 겸수된 사례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미타신앙과 밀교신앙을 겹쳐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제12화의 「원래부터 존승(尊勝)·천수다라니를 외웠다. 또 항상 아미타 염불을 했다」(「素より尊勝・千手陀羅尼を誦せり。また常に弥陀仏を念じた」)²²⁾는 엔라쿠지(延曆寺)동탑의 승려 갑모(甲某)의 왕생을 비롯하여, 제19화의 「원래부터 밀교를 즐겨 수행하고, 겸해서 미타염불을 했다」(「素より密教を嗜み、兼て弥陀を念じたり」)²³⁾는 엔라쿠지 승려 묘쇼(明請) 등의 왕생이 있다.

또, 아미타신앙과 법화·밀교 두 신앙을 모두 겸하고 있는 예로는, 제16화의 엔라쿠지의 주지승정(座主僧正) 엔쇼(延昌)를 들 수 있다. 그는 「현교와 밀교를 배우고...미타의 찬(讚)을 외우고,

14) 서방에 있는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을 믿는 것.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아미타신앙과 아미타정토신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15) 『極樂記』제5화, 20쪽.

16) 『極樂記』제11화, 제24쪽.

17) 『極樂記』제17화, 28쪽.

18) 『極樂記』제22화, 32쪽.

19) 법화경 경전의 내용을 신봉하는 것. 법화경신앙과 법화신앙은 동일한 의미임.

20) 『極樂記』제34화, 37쪽.

21) 『極樂記』제36화, 38쪽.

22) 『極樂記』제12화, 25쪽.

23) 『極樂記』제19화, 30쪽.

겸해서 정토의 인연, 법화경의 심오함에 대해 토론」(『顯密を學び…彌陀の讚を唱へ、兼て淨土の因縁、法華の奧義を對論』)²⁴⁾하고, 임종 시에는 끊임없는 염불(不斷念仏)과 법화경 100부를 서사한 공덕으로 왕생하였던 것이다. 또, 현교와 밀교를 수학한 엔라쿠지 주지(座主) 지카구대사 엔닌(慈覺大師門仁, 第4話)등도, 상기와 같은 예로 간주할 수 있다.

아미타신앙은 행하지 않고 법화·밀교 양 신앙을 겸해서 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26화의 「매일 법화경 1부를 읽고, 밤에는 대불정진언(大仏頂眞言) 7편을 외우는 것을 일상의 일로 삼아」(『日に法花經一部を讀み、夜は大仏頂眞言七遍を誦して、もて恒の事とな』)꿈 속에서 극락 변경에 갔다 온 고마쓰지(小松寺)의 승려 겐카이(玄海)의 왕생의 예²⁵⁾가 1개 있을 뿐이다.

상기의 내용 이외에도 아미타염불과 다른 행업을 겸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제14화의 엔라쿠지 승려 진제(尋靜)가 왕생을 위해 염불과 『금강반야경』독송을 겸수(兼修)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락기』에는 왕생을 위한 행업으로는 아미타신앙 전문(專修)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법화경의 행업은 전부 9개의 예만 나타나 있어 법화경신앙은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²⁶⁾.

『법화경』보다 아미타신앙을 중시하는 자세는 중요한 행업인 「염불」의 종류에도 나타나고 있다. 『극락기』에 기재된 왕생자는, 평소 혹은 임종 시에 왕생극락을 바라고 있는데 이 때 특히 중요한 행업은 「염불」이다. 『극락기』에는 단순히「염불」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예가 16화 있고, 또「염아미타불(念阿彌陀仏)」이 17예, 「미타염불」이 1 예, 「염불삼매」가 5예, 「끊임없는 염불(不斷念仏)」이 2예가 있다. 따라서 『극락기』의 대부분의 왕생자는 「염불」이나 「염아미타불(念阿彌陀仏)」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극락기』에 서술된 「염불」과 「염불삼매」가 아미타신앙을 나타내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제12화의 「항상 미타불을 염하고, 「세속에 있는 날이 짧으므로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常に彌陀仏を念じ、世にある日短ければ、念仏するにしかじ』)²⁷⁾라고 생각한 엔라쿠지 동탑의 승려 갑모(甲某)、제14화의 「밤에는 아미타불을 염하고」(『夜は阿彌陀仏を念じ』), 임종 때에는 「일심으로 염불」한 주젠지(十禪師) 진제(尋靜)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염아미타불(念阿彌陀仏)」과 「염불」은 동일 왕생자가 수행하는 행업으로 묘사되어 있다²⁸⁾. 여기에서 「염불」과 「염아미타불」은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어쨌든, 왕생하기 위한 행업으로 아미타염불이 가장 중요하며 아미타신앙은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바꾸어 말하면, 『극락기』에서는 왕생자에게 있어서 아미타신앙이 필수로 되어 있어 아미타 신앙에 의한 행업만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법화경』과의 겸수(兼修)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4) 『極樂記』제16화, 27쪽.

25) 『極樂記』제26화, 33쪽.

26) 그 중에서, 법화참법(法華懺法, 제4화), 법화경서사가 2개(제7화, 제16화), 법화의 심오함을 토론하는 것이 1개(제16화), 외우는 것이 1개(제34화), 법화경을 읽는 것이 4개(제21화, 제26화, 제33화, 제36화)로, 대부분이 법화경을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7) 『極樂記』제12화, 25쪽.

28) 동일한 예는, 이외에도 제13화, 제17화, 제19화, 제33화, 제36화에도 있다.

3. 『법화합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

『법화합기』의 왕생설화에서도 『극락기』와 같이 그 인물의 출생·행업·임종·상서로운 징조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임종에 역점을 두고 대부분이 임종정념(臨終正念)·임종의식에 의해서 왕생을 이룬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 임종 때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라든가 왕생자가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왕성한 곳을 알려주는 것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 요소는 『극락기』와 『법화합기』의 왕생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극락기』와 마찬가지로 정토왕생을 위해서 왕생자의 임종의식과 그가 생전에 어떤 행업을 행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그럼으로써 『법화합기』에 나타난 왕생설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법화합기』의 왕생설화에 보이는 임종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화합기』의 왕생자가 왕성한 곳과 왕생을 위한 행업을 파악하기 위해,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전수(專修) | 법화경과의 겸수(兼修) | | | |
|--------|---|--|---------------|---------------------|--------------------|
| | 법화경 | 아미타신앙 | 밀교 | 아미타신앙·밀교 | 기타 |
| 서방극락정토 | 9, 15, 19, 24, 35, 39, 42, 55, 64, 73, 102, 103, 109, 110, 118, 121 | 34, 38, 40, 51, 95, 99, 101, 111, 116, 120 | 7, 12, 43, 65 | 4, 6, 7, 50, 52, 83 | 40, 74, 82, 90, 94 |
| 도솔천 | 13, 16, 23, 80, 86, 118, 119, 129 | 97 | 5 | 83, 104 | 26, 112 |
| 도리천 | 124, 125, 127, 129 | | | | |
| 보타락세계 | 128 | | | | |
| 기타 | 14, 17, 33, 53, 54, 56, 68, 113, 126 | 117 | 20 | | 37, 69, 70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합기』의 내용 중, 왕생에 관한 이야기는 129화 중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화합기』가 왕생담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시카와(橋川正)에 의하면 『법화합기』에는 법화경을 수지하면서, 그 정토가 확실하게 서방아미타의 극락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36화, 설화의 내용상 서방아미타신앙 추정할 수 있는 것이 13화, 그 외 미륵정토에의 상생(上生)을 원하는 것이 13화, 도리천(勿利天)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4 화이다²⁹⁾. 이를 정리해 보면, 『법화합기』의 왕생자가 왕생하는 곳은 크게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와 미륵불의 도솔천이고, 이 외에도 제석천의 도리천, 관음보살의 보타락세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법화합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미타정토신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9) 橋本正『日本仏教史の研究』(京都、中外出版、1924年), 154쪽.

3.1. 『법화합기』에 나타난 아미타정토신앙

『법화합기』는 법화경 영험담이지만, 『법화합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 정토는 정토교와 관련된다. 게다가, 『법화합기』의 내용 중에 서방아미타정토 뿐만 아니라 『극락기』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도솔천, 도리천 등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먼저, 『법화합기』에 나타난 정토사상 중에도 『극락기』와 같이 아미타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화합기』에 서술된 아미타신앙의 행업은 「염아미타불(念阿彌陀仏)」(5例), 「미타염불(彌陀念仏)」(4例), 「염불삼매(念仏三昧)」(1例), 「끊임없는 염불(不斷念仏)」(1例), 그 외, 구칭염불(口稱念仏, 3例)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합기』도 『극락기』와 같이 왕생설화에 있어서 아미타신앙은 주로 미타염불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임중에 있어서 상서로운 징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현몽(夢告)과 아미타불의 내영(來迎)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심정에서 아미타신앙을 읽을 수 있다.

『법화합기』의 내용 중에, 왕생을 위해서 임종의식과 극락왕생의 증거가 되는 상서로운 징조의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중권 제51화의 교묘법사(境妙法師)는 임종 시에 아미타불이 그를 맞이하러 올 것(引接)을 기대하여 「목욕한 후 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색실을 미타불 손에 묶고」(「身体を沐浴して淨き衣裝を着て、五色の糸をもて、彌陀仏の手に着けて」), 서쪽을 향해 숨을 거두었다. 사후 어떤 수행자의 꿈에 교묘(境妙)가 탄 금색 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자들에게 둘러싸여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³⁰⁾. 또, 상권 제4화의 지카쿠대사 엔닌(慈覺大師円仁)은 자신의 임종 직전, 하늘에서 내려온 승려 수십 명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³¹⁾ 또 상권 제17화의 지법(持法)·지금(持金) 두 법사는, 임종 때에 성스러운 보살대중들(聖衆)이 와서 내영(來迎)하여 둘 다 정토에 왕생했다. 또, 상권 제6화는 『극락기』를 출전으로 하는데³²⁾ 거기에는 승정 엔쇼(僧正延昌)가 아미타의 내영(來迎)을 기대하고 서쪽을 향해서 자신의 손과 아미타상에 실을 묶어 연결하여 왕생했다. 이와 같이 임종 시의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 즉 자주색 구름이 길게 뻗치고(상권 제15화), 내영(來迎)하는 부처님을 보고(상권 제17화), 혹은 음성을 듣는(상권 제17화, 同제20화, 同제21화, 同제22화)등의 예는 『극락기』에서 볼 수 있는 서방왕생의 아미타 내영(來迎)과 같은 풍경이다.

3.2. 보현보살의 내영(來迎)

그러나, 『법화합기』에 나타난 임종형태에 대해 더 주목해 보면, 『극락기』에 묘사되어 있는 아미타 내영(來迎)과 닮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권 제56화의 조조법사(長増法師)는 『법화경』독송을 평생의 일과로 삼고, 흰 코끼리왕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꿈을 통해서, 묘법의 힘으로 왕생할 것임을 예시 받았다. 또, 중권 제46화의 예칸(叡桓)대사는 『법화경』독송을 일생의 일과로 삼고 임종할 때 「손에 향로를 들고, 보현보살 상(像)을 향해 법화를 외우는」(「手に香爐を執りて、普賢の像に對ひ、口に法花を誦」)³³⁾등의 임종의식을 행했다. 그

30) 『法華驗記』중권 제51화, 119쪽.

31) 『法華驗記』상권 제4화, 59쪽.

32) 『極樂記』제16화.

리고 중권 제68화의 교쿠(行空)는 『법화경』 수행자이기도 한데, 임종 시 「보현보살이 머리를 쓰다듬고, 문수보살이 수호하고, 연꽃을 받들고, 천의(天衣)를 몸에 걸치고」(「普賢摩頂して、文殊守護し、蓮華足を承けて、天衣身に繫げ」)왕생했다³⁴⁾. 흰 코끼리(白象-보현보살이 타고 다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정토왕생의 암시로 여겨지거나(중권 제56화), 왕생을 할 때 보현보살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중권 제68화)하는 사례는, 보현보살에 의한 인접(引接)·내영(來迎)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보현보살의 상(像)을 대상으로 하는 임종의식(중권 제46화)도 보현보살에 의한 인접(引接)·내영(來迎)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미타와 성스러운 보살대중들(聖衆)에 의한 내영(來迎) 때의 의식이나 상서로운 징조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보현보살에 의한 내영(來迎)·상서로운 징조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현보살에 의한 왕생 내영(來迎)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법화경』의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제28」의 「법화경을 독송하면, 나는 그 때, 여섯 이빨의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大菩薩衆)과 함께 그의 처소에 나타나... 만일 앉아서 법화경을 생각하면... 나는 또, 흰 코끼리 왕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 사람이 만약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계송이라도 잊어버리면 나는 마땅히 그것을 가르쳐서 함께 읽고 외어 다시 통달하게 할 것이다」³⁵⁾라는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보현보살은 『법화경』 수행자와 『법화경』을 수호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왕생 내영(來迎)과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보현보살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법화험기』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법화험기』에도 『법화경』의 이 경문과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 제22화의 순초법사(春朝法師)는 육에 간힌 죄인에게 불도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법화경』을 읽고 외었는데(讀誦)했는데, 감찰청의 주장(檢非違使別當)이, 꿈에 「흰 코끼리 왕을 탄 보현보살이 순초를 공양하는」(「白象王に乗った普賢菩薩が、春朝を供養する」)모습을 보고, 그를 석방했다. 또, 중권 제58화의 렌손(蓮尊)은 『법화경』의 전28품 중에 27품을 명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만은 암송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현보살상(像)을 향해서 「보현보살님, 법화경의 넓은 서원을 나타내시어, 이 경전을 수행하는 자(持經者)를 수호하시고,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저 또한 통달하게 하소서」(「普賢菩薩、法花經において弘誓の願を發して、持經者を守護し、句痘を忘れ失ふことあらば、我また通利せしめむとのたまへり」)³⁶⁾라고 울면서 빌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험기』에서 『법화경』경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겐은 보현보살이 왕생 내영(來迎)과 그다지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법화험기』에는 『법화경』의 공덕에 의한 보현보살의 왕생내영(來迎)이 서술되어 있고, 그것은 『극락기』와 『법화험기』에 기술되어 있는 아미타 내영(來迎)과 닮아 있다.

『법화험기』의 편자 진겐이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서 ①수많은 대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내려올 때, 음악이 울리고 연꽃이 비처럼 쏟아졌으며, 또 ②『법화경』

33) 『法華驗記』중권 제46화, 112쪽.

34) 『法華驗記』중권 제68화, 137쪽.

35) 『法華經』中, 「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六」320~322쪽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한 것임.

36) 『법화험기』중권 제58화, 125쪽.

수행자를 수호하기 위해 사바에 올 때 대중보살들을 거느리고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보현보살을 아미타내영(來迎)과 닮은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모든 왕생자가 원하는 내영(來迎)을 『법화경』과 연결시킴으로써 법화경신앙의 위대함을 표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영(來迎)을 포함한 임종정념(正念)에 대해서 『극락기』와 『법화험기』를 비교해 본 결과, 『법화험기』의 임종에 대한 장면은 『극락기』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법화험기』에 나타난 왕생 수행

그러면 이와 같은 『법화험기』의 임종의 양상을 근거로 『법화험기』에 나타난 정도사상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법화험기』에 묘사된 정도왕생과 행업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법화험기』에 서술되어 있는 왕생자가 왕생하기 위해 행한 평소의 수학·행업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법화경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수와 법화경신앙과 다른 여러 수행을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겸수에는 법화경과 아미타신앙·밀교와의 겸수, 법화경·아미타신앙·밀교 3개의 겸수도 볼 수 있다.

먼저 법화경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①「법화경 독송을 일생의 일로 삼」(「法華を讀誦するをもて、一生の所作とな」)고, 『법화경』의 위력으로 석가가 입적한 날인 25일에 극락왕생했다고 하는 『법화경』수행자인 리만법사(理滿法師, 상권 제35화)³⁷⁾, ②「법화경을 일심으로 독송·수지하여 다른 수행은 하지 않고, 1년에 1권을 외워서 8년에 1부를 외우다」(「法華經において、一心に讀持して、更に他のことなく、一年に一卷を誦して、八年に一部を誦せり」)는 『법화경』수행 결과, 도솔천에 왕생했다고 하는 텐노지(天王寺) 수장 도묘아자리(別当道命阿闍梨, 하권 제86화)의 왕생³⁸⁾ 등이 있다.

『법화험기』의 겸수 중에는 『극락기』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아미타신앙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 제34화의 사문 코엔(沙門好延)은 「아타고산(愛太子山)에 올라 법화경을 읽고 배워서, 「노후에 이르러 더욱더 의지를 불태워 독송했다. 또 법화참법(法華懺法)을 수행하고, 미타염불에 힘써서」(「愛太子山に登りて、法華經を讀み習い、老後に至りて、彌その志を勵まして、讀誦常に倍す。また法華懺法を修し、弥陀念仏を勤」), 서방극락에 왕생했다³⁹⁾. 상권 제38화의 이외쿠라사(石藏寺)의 센쿠법사(仙久法師)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법화경』을 외우는 한편으로 「미타를 예배하고 염불」(「弥陀を礼し念」)했다⁴⁰⁾. 중권 제51화의 료공인(楞嚴院)의 교묘법사(境妙法師)는, 임종 때에 「법화를 전독(轉讀)하며, 법화참법(法華懺法)을 수행하고, 미타염불」(「法花を轉讀し、法華懺法を修して、弥陀念仏」)을 했다⁴¹⁾. 이들은 전부 제행 겸수(諸行兼修) 중에 아미타염불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미타염불은 전부 『법화경』수행과 겸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락기』에서 왕생을 위한 행업으로 아미타신앙, 특히 아미타염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지만 『법화험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업 중 1개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화경 독송과 법화참법

37) 『法華驗記』상권 제상권 제35화, 94~95쪽.

38) 『法華驗記』하권 제86화, 164~166쪽.

39) 『法華驗記』상권 제34화, 93~94쪽.

40) 『法華驗記』상권 제38화, 98쪽.

41) 『法華驗記』중권 제51화, 119쪽.

(法華懺法)이 왕생자에게 중요한 행업으로 간주되고 있다⁴²⁾. 『법화험기』가 전통적인 「해골(髑髏)의 『법화경』독송」의 설화 형태를 도입한 것은 『법화경』 독송을 중요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노우에(井上光貞)는, 『법화경』 독송은 법화참법(法華懺法)에서 유래하는 행업이다, 라고 했다⁴³⁾. 따라서 『법화험기』가 강조하는 『법화경』 독송은 법화참법(法華懺法)의 멸죄(滅罪)효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윤회로부터의 탈출이나 왕생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권 제63화의 히에잔(比叡山) 서탑의 메이슈법사(明秀法師)는 임종시에 『법화경』을 손에 들고 「무시죄업(無始の罪性), 내 몸에 스며들어... 항상 이 경전을 외고, 성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 경전을 외을 것이다.」(「無始の罪性、我が身に薰入して...常にこの經を誦し、仏果に至るまでこの經を誦せむ」)라고 서약했는데, 과연 메이슈(明秀)의 사후 그의 묘소에서는 생전과 같은 독경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⁴⁴⁾. 메이슈(明秀)의 서약에는 「자각한 자기의 죄는, 『법화경』독송을 계속함으로써 소멸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깨달음도 가능해진다」⁴⁵⁾라는 신앙의 표출이고 묘소의 독경소리에 관한 이야기는 그 『법화경』독송에 대한 맹세의 처절한 양상을 전해주고 있다.

『법화험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왕생의 특징으로서 인간 이외의 축생 등의 왕생이 있다.

진권은 『法華驗記』에서 『법화경』이 인간이 아닌 축생까지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화경 설화집의 행업별 배열 형태가 아닌 인물 중심의 배열을 취하고, 마지막 부분에 인간 이외의 「축생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축생이라도, 법화경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제된다는 법화경 공덕의 심대한 영험을 통하여 법화경의 위대한 능력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권 제129화는 유명한 안진(安珍)·키요히메(清姫)의 도쥬지(道成寺) 설화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로군(紀伊國牟婁郡)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다. 여자는 어느 날 쿠마노(熊野)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젊은 승려를 연모하였는데, 그 승려는 궁여지책으로 참배를 마친 후에 돌아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승려가 약속을 어기자 여자는 분노해서 큰 독사로 변해, 도쥬지(道成寺)의 종 속에 숨어 있던 승려를 태우고 여자 자신도 죽었다. 사도(蛇道)에 떨어진 두 사람은 그 절의 노승으로부터 『법화경』 서사공양을 받고, 각각 도술천·도리천에 왕생했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맥락이 125화~128화에도 적용된다. 『法華驗記』에서의 법화경신앙의 경우는 독송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서사는 주로 불성(仏性)이 뒤떨어지는 사람을 위한 행업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권 제125화의 뱀과 쥐, 제126화의 원숭이, 제127화의 여우, 제128화의 도소신(道祖神)이 법화경 서사의 공덕으로 각각 도리천과 보타락 세계에 왕생했다. 즉 이들 설화에서 인간 이외의 축생 등이 법화경 서사의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법화험기』에서는 법화경의 절대적인 힘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도 적극적인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극락기』에는 인간 이외의 축생 등이 왕생한 예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법화경』에 의한 강한 멸죄 신앙을 표명하고 있는 『법화험기』의 왕생사상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즉, 『극락기』에서는 아미타신앙에 근거를 둔 임종정념(臨終正念)·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에

42) 예를 들면, 상권 제40화의 헤이간 수행자(平願持經者)는, 「미타염불 및 법화참법을 수행」(「彌陀念仏及び法華懺法を修」)한 것에 의해 서방극락에 왕생했다.

43) 井上光貞『往生伝・法華驗記』日本思想大系、解説、725쪽.

44) 『法華驗記』중권 제63화, 131쪽.

45) 「」의 내용은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46) 그 내용에 대해서는 金敬姬『法華驗記』にとりこまれる往生思想一配列と分類に注目して一』『日本文化學報』 제8집, 247~269쪽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의한 왕생이지만, 『법화합기』에서는 이들의 임종의식은 모두 법화경의 절대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4. 결론

이상, 『법화합기』와 『극락기』에 나타난 왕생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극락기』에서의 왕생양상을 살펴보면, ①왕생하는 장소로는 아미타서방극락정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왕생자는 거의 인간으로 국한되어 있다. ②왕생을 하기 위한 행업으로서는 아미타 염불과 『법화경』, 밀교수행과의 겸수(兼修)를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미타신앙만을 수행하는 아미타전수(專修)가 많다. 특히 왕생을 위해서는 아미타 염불이 가장 중요한 행업이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또 『극락기』에서는 임종정념(臨終正念)·아미타 내영(阿彌陀來迎) 등의 임종의식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모두 절대적인 아미타신앙에 귀결된다.

한편, 『법화합기』에서의 왕생양상을 살펴보면, ①『법화합기』에는 서방극락정토 외에도 도솔천, 도리천, 보타락세계 등의 다양한 왕생장소가 묘사되어 있으며, 인간은 물론 인간이외의 축생 등 모든 존재가 왕생할 수 있다. ② 왕생을 위한 행업으로서는 『법화경』과 아미타 염불 등의 겸수도 볼 수 있지만, 『법화경』전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법화경신앙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극락기』의 아미타 염불→왕생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법화합기』는 법화경영험에 의해 죄 사함을 받고 왕생한다는 멸죄의식과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③또, 『법화합기』의 왕생설화에서도 임종정념(臨終正念)·아미타 내영(阿彌陀來迎)에 의한 왕생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겐(鎭源)은 단지 『법화경』수행자를 수호하는데 지나지 않는 보현보살을, 아미타 내영(阿彌陀來迎)과 동일한 보현보살내영(來迎)으로 묘사하였다. 이들의 임종의식은 모두 법화경신앙의 절대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화합기』의 왕생설화는 『극락기』의 왕생양상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극락기』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왕생을 논하고 있다. 즉 『법화합기』는 인간이외의 존재의 왕생, 또 아미타정토 외의 도솔천, 도리천, 보타락 정토에의 왕생, 보현보살 내영(來迎)에 의한 왕생 등을 왕생설화 속에 도입함으로써, 모든 정토와 모든 존재의 왕생에 대응되는 『법화경』신앙의 위대함을 표명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石田瑞麿(1968)『往生の思想』平樂寺書店, 121쪽.

- ・金敬姫『『法華驗記』にとりこまれる往生思想—配列と分類に注目して—』(『日本文化學報』 8 集) 247～269쪽
- ・後藤祥子(1997年8月10日)『法華經驗記成る』『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第42卷 10号, 學灯社, 61上.
- ・佐藤弘夫(1992)『神・仏・王權の中世』東京, 吉川弘文館, 390쪽.
- ・重松明久(1960年3月)『往生伝の研究—平安時代の七往生伝につい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23)
- ・志村有弘(1976)『往生伝研究序説』東京, 櫻楓社, 356～357쪽.
- ・西口順子書評(1960年11月)『重松明久『往生伝の研究』—平安時代の七往生伝について—』(『仏教史學』9～1, 53下)
- ・橋本正(1924)『日本仏教史の研究』京都, 中外出版, 154쪽.
- ・原田行造(1973年12月)『『本朝法華驗記』所收説話の諸特徴』(上)『金澤大學教育學部紀要』22号.



要旨

『法華驗記』は法華經靈驗譚である。その中には、現世利益的な靈驗と來世利益的な靈驗の説話が記述されている。本稿では『法華驗記』來世利益的二往生伝的な面が多く記載されていることの意義に注目し、それについて考察した。また、往生の様相について述べる際に、『法華驗記』の典據であり、往生伝である『極樂記』と『法華驗記』との兩者における往生の様相を比較・考察し、『法華驗記』の往生思想の特徴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法華驗記』と『極樂記』に見られる往生思想を比較してみたところ、以下のよう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

兩書ともに、阿弥陀仏の西方極樂淨土への往生と臨終正念・阿弥陀來迎による往生などが強調されている点から、『法華驗記』が『極樂記』の影響を受けられたことがみとめられる。しかし、それをより詳しく見ると、『法華驗記』の往生説話は『極樂記』の往生様相と重ねられている面もあるが、一方では『極樂記』とは異

なる往生の様相を呈している。つまり、『法華驗記』の往生説話の中には人間に限られず、人間以外の異類の往生、また阿弥陀浄土だけではなく、兜率天・忉利天・補陀落世界への往生、普賢菩薩來迎による往生などが描かれている。それによって、鎮源は『法華驗記』の中ですべての浄土・すべての存在の往生に対応できる、法華信仰の威力を現す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往生, 法華経, 阿弥陀, 念仏, 行業, 來迎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 (305-712) 대전시 유성구 장동48번지 대덕대학 관광계열 관광일어전공
電 話 : 042-866-0433
E-mail : khkim@mail.ddc.ac.kr, khkim3@hotmail.com